

태권도학과생의 자발적 휴학 동기와 경험

김나혜(경희대학교 강사) · 정태검*(경희대학교 겸임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휴학생 증가가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여 태권도학과생들이 휴학하게 된 동기와 자발적 휴학 동안에 마주하게 된 환경에서의 경험이 갖는 의미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목적 표집을 통해 수도권 소재의 4년제 대학 태권도학과에 재학중이면서 과거에 1년 이상 군휴학이나 급전적인 이유 이외의 목적으로 휴학한 10인을 대상으로 선정한 뒤 2021년 3월부터 4월 사이 주1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개별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휴학 동기는 ‘자율적 생활’ 과 ‘진로 탐색’ 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의 울타리에서 느낀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휴학 중에 ‘태권도에서 벗어난 삶’ 을 경험하거나 ‘태권도 현장에 집중한 삶’ 을 경험하면서 주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이 사회와 대학생 세대의 변화에 주목하여 휴학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휴학 제도의 개편과 대학 교육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발휘 공간을 지원하여 전공 영역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대학, 휴학, 태권도학과, 경험, 진로발달

* halsee@khu.ac.kr

I. 서 론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높은 대학 진학률은 지식사회로의 진입과 초기 성인기의 대학생들이 지식사회에서 인재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적 중요성을 증빙한다. 한국 사회에서 만 18-21세의 취학 적령 인구 중 70% 이상이 고등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고등교육의 보편화(주회정, 차성현, 2011)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으로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저하되고 정보의 디지털화 등 사회적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대학 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에서는 대학 교육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직무 경험과 직무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휴학생 계층’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만큼 휴학 인구가 증가하였다(홍영숙, 2017).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대졸자의 휴학 경험 비율이 47%로 상승세에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을 제외하더라도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경험 등의 이유로 휴학자가 증가추세에 있다(통계청, 2020).

과거 휴학 사유가 대학 생활의 부적응이나 경제적 문제 등 개인 사유가 주된 이유였다면, 최근 ‘휴학생 계층’의 증가는 자기계발과 취업을 위한 것으로(박은선, 김광현, 2016) 사회적 요구와 관련이 있다. 대학 교육 이외의 활동을 요구하는 사회의 과도한 스펙(Specification의 준말. 경력, 업적 등 구직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 경쟁은 대학생에게 피로감과 대학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학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하며, 휴학을 선택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는 휴학은 학계와 현장 업무 간의 괴리를 줄이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계발을 위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초기 성인기에 놓인 대학생들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처한 어려움에 대학이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휴학생의 증가는 학교와 사회에 손실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정해진 학교 자원의 공유와 유지비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송필준, 김중태, 2012), 미복학으로 인한 재원 및 이탈에 대한 관리를 어렵게 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 인력의 사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사회적 손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학생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취업 이후로 미룬다면, 회수가 지연된다는 측면에서도 국가적 손실로 나타날 수 있다(Kurlaender, Jackson, Howell & Grodskyc, 2014; 우선영, 2016 재인용).

1980년대 초반 용인대와 경희대에 개설되기 시작한 태권도학과는 태권도 보급의 확대로 태권도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태권도를 주제로 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에 따라 개설되었다. 2017년 약 29개교의 태권도 관련 학과에 매년 1,308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국기원 태권도연구소, 2017). 그러나 최근 2000년대에 비해 저출산과 대학 재정의 어려움으로 태권도학과와 수가 감소추세에 놓임에 따라, 태권도 전문 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태권도학과와 교육과 환경 조성에 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교육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졸업생의 취업에 대한 관리가 재학생의 이탈 방지와 입학생 모집이라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태권도학과생의 삶에 대한 다각도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태권도학과생의 대학 생활 적응(신호철, 김종수, 차영남, 2020; 유동현, 2016; 최공집, 조혜영, 2020), 진로 탐색(김두한, 백우열, 2020; 박상진, 이재봉, 2019; 송성봉, 이재봉, 2018), 해외 봉사 경험(서희정, 이운영, 박지연, 2020; 석류, 송남정, 2017; 유동현, 조성균, 2016) 및 해외 사범 경험(나운호, 장익영, 2020; 박성언, 김하영, 2017; 유동현, 2017; 윤혜영, 박재우, 2020)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태권도학과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태권도학과생의 학업성취도 및 취업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가 재학 중이거나 단기간의 체험형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업 중단과 졸업 지연을 야기하는 휴학을 지향하는 태권도학과생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태권도 전문가의 양산은 사회에서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중 태권도학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들은 생애주기를 고려하였을 때 태권도로의 진로를 꿈꾸고 사회에서 태권도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태권도’라는 종목으로 전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학령기에 있는 태권도학과학생들이 대학의 교육과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대학에서 잠시 이탈하는 삶을 선택한 것은 학과생들 개인에게도,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학생의 대부분이 취업난, 취업에 따른 불안감으로 휴학이나 졸업 유예를 경험하거나(이종하, 김동준, 김준, 2016)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기에 대학은 휴학생들의 활동에 주목하여 대학생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학과생이 대학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마주하게 된 새로운 환경에서 어떠한 경험과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 태권도학과생에게 대학 생활에서 추구하는 바와 진로 선택과정에서의 고민 과정을 휴학 과정에서 탐색하여 진로 탐색 프로그램 개발이나 휴학생에 대한 관리방안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층적 자료 수집에 주로 사용되는 비확률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중 유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 태권도학과와 재원으로 1년 이상 휴학을 경험하고 복학한 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근래에 나타나고 있는 휴학생

증가 현상을 반영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입대와 금전적 사유와 같은 비자발적 휴학만을 경험한 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면담을 진행하기 앞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적극적인 의사가 있고 휴학 경험을 소상히 전달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0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대학에 소속되어 선수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으나 이를 휴학 이전에 중단하여 면담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연구참여자 가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태권도학과생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심층면담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구분	연령	성별	단	휴학기간	주요 경험	구분	연령	성별	단	휴학기간	주요 경험
A	22	남	3단	1년	해외 여행	F	24	여	4단	1년	보조 코치
B	23	여	4단	1년	취업 준비	G	24	남	4단	1.6년	아르바이트
C	23	남	4단	1년	국내 사범	H	25	남	4단	1.6년	해외 사범
D	24	남	4단	1년	영어 공부	I	25	남	5단	2년	해외 사범
E	23	여	3단	1년	국내 사범	J	25	남	5단	2년	프로젝트

2.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참여자 10인을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1회~3회씩 50분에서 1시간 30분 동안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를 선택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하여 면담 이전에 만남을 가졌으며, 면담 중에는 편안한 면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 수용과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질문의 주요 내용은 휴학 기간 중 경험한 주된 내용, 인상깊었던 내용 및 태권도 전공자로서 휴학 경험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 상황, 의미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들을 통해 깊이 있게 탐색해 나갔다.

모든 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느끼는 감정과 맥락을 그대로 담기 위해 참여자의 어투를 그대로 당일에 전사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참여자에게 동의를 구한 뒤 녹취하였으며, 면담 중 연구참여자의 표정, 어투 및 손동작 등을 노트에 기록하였다. 녹취물은 당일에 전사하였으며, 미비하거나 추가 질의가 필요한 사항은 모바일 메신저와 추가 면담을 하여 분석자료를 획득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반복적 읽기와 의미 단위를 추출한 뒤 범주화 작업을 거쳐 핵심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인 귀납적 범주분석 방법(Patton, 1980)을 활용하였다.

3. 연구의 타당도 및 진실성

질적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고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신뢰성 증거(trustworthiness criteria)에 따라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 동료검토(critical friend review) 방법을 실시하여 편향된 해석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분석 결과를 연구참여자들에게 재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왜곡 및 생략된 부분은 수정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태권도학과 교수 1인과 체육학 박사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이 자료를 검토하였고, 연구자의 선입견과 주관성이 개입되어 오류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Ⅲ. 더 넓은 세상으로 나를 찾으러 떠나다

태권도와 관련된 전문 교육은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단일적 지도자 교육이나,

국가에서 운영되는 체육지도사 자격이 있다. 이러한 자격은 태권도 관련 직종에 취업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사범, 심판 이외의 태권도 관련 직종에 취업하기 위한 태권도 전문 자격은 없기에 이외의 태권도 관련 직종에의 취업에 필요한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 또한, 태권도학과생이 대부분 3단 이상자이고, 태권도학과 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태권도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휴학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기개발이나 성찰 등 일반 사회에서 나타나는 스펙 쌓기와는 다른 휴학 동기를 가진다. 연구참여자들은 제한된 생활 범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경험의 한계를 느끼고 경쟁, 학업 및 취업준비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만을 위한 자율적 생활을 위하거나, 진로 탐색을 위한 현장 경험을 위해 자발적 휴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자율적 생활을 찾다

연구참여자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약 14년의 시간 동안 학생의 신분으로 학업 성적이나 입상을 목표로 평가에 대비하는 생활을 해왔다. 제도적 틀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결정을 해오다 보니 대학에서 느끼는 자율성이 커질수록 오히려 삶의 방식들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게 느껴졌고, 대학에서 권장하는 교육과정과 생활 방식을 따르려 노력하였다.

선수 할 때는 딱 훈련 시간이라 강 의 시간이라 해서 정해진 일과가 있잖아요.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수강 신청부터 운동까지 시키는 대로 하는것이 최선이었어요. (참여자 A)

고등학생일 때랑 지금이나 생활이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 가고, 집에 오고 이 패턴이죠. 사실 처음에는 휴학을 생각않했어요. 이미 군 휴학도 했고, 졸업을 늦춰서 좋을게 없었죠. (참여자 D)

초기 성인기에 들어서면서 대학생들은 생활면에서 높아진 자율감을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 주가 되었기에 선택에 제한이 생기고 객체로써의 삶을 지속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생활에 안주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였음을 깨달았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사회인으로서의 하기 어려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선수를 그만두고 싶다고 계속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하니깐라고 생각은 했어요. 선수를 계속 했어도 좋았겠지만, 내가 뭘 하고 싶었던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대로 끌려가듯 대학을 계속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참여자 B)

대학 생활을 온전히 즐겼죠. 운동하고 강의 듣고 술 마시고. 그런데... 이유 모를 막막함이나 불안한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애들이랑도 졸업하고 뭘할지를 계속 얘기했는데 제 생각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참여자 H)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성실히 운동했고, 우수한 기량을 인정받으며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입학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대학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그 만족감이 줄어들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대학 생활에서 내면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발적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다. 대학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을 마주하고자 하였다. 자발적 휴학기간 동안 연구참여자들은 익숙했었던 학교라는 안정감 있는 공간과 삶의 위치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기에게 온전히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의 변화를 인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는 게으르고 여유롭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남들이 해보는 그런 평범한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자전거도 타고, 책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요. (참여자 A)

교양에서 친해진 타대생이 열심히 사는걸 보고 저도 조바심이났어요. 선배들도 만나고 교수님 상담도 하고 했는데, 방향이 잘 안보이더라고요. 기관은 사람을 정기적으로 뽑고 있지 않았고, 태권도 관련 기업들은 영세하고... (참여자 J)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변해가는 관문에 선 대학생들이 겪은 성장통과 같은 이유 모를 답답함들은 내면적 성장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으며, 일상과 대학생으로서 해야 할 과업에 대한 회피처럼 자발적 휴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인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를 회피하지 않았다. 대학에서 제한된 인간관계나 강의를 듣고 보고서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자율적이며 더 넓은 세상에서의 낯선 자신을 마주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를 탐색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태권도를 전공하는 자신의 성향이나 역량이 사회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대학 생활기간 중에 태권도학과생이나 타전공생들과도 소통하며 막막함을 느끼고 진로 준비를 위해 사회를 직접 경험해보며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보기 위해 휴학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 시범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 하면 할수록 더 좋아졌어요. 하지만 직업은 아직 안된 것 같아요. 정규직은 아니잖아요.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평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죠. (참여자 C)

대학 입학은 진짜 간절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대학에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서 위축되기도 했고... 두려리되긴 싫고... 의미도 모르겠고... 태권도가 싫어졌어요. 평생 태권도를 하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참여자 G)

태권도계가 처한 산업적 구조때문만이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은 자발적 휴학 기간 중에 의도적으로 태권도 이외의 영역에서 직업을 선택하여 자신의 적성, 전공 그리고 직업에 대한 방향성에 고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Astin(1984), Kuh(1991), Strange와 Banning(2001) 등의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겪는 경험 자체를 ‘환경’ 이라 보고 학생과 환경 간의 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변화와 발달, 그리고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태권도학과는 태권도 도장 문화나 선수부의 문화가 대학으로 연장되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인맥이나 전문성의 형성에서는 뛰어난 구조를 가지지만, 해당 시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사고를 가지기 어려웠다고 언급하였다.

태권도학과니까 선배들이 어떤 직업이 좋고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얘기해주잖아요. 취업 관련해서 다리도 놔주고, 추천도 해주고 하는데 제가 사회에서 직접 부딪혀보니까 그 정보들이 엄청 좁았어요. (참여자 B)

학교 다니면서 사범일을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레포트도 제대로 준비안하고 시험날도 모르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매번 힘들다고 불평불만하면서 사범은 절대로 안할거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임용고사 준비할 거라고 했었는데 결국 사범 하고 있어요. 믿을 만한 선배가 없었어요. (참여자 D)

환경적으로 태권도에 둘러싸인 생활은 진로와 관련된 정보 탐색 및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태권도 이외에 관심을 두었던 영역과 앞으로의 삶에서 자신에게 직업이 갖는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태권도 산업의 사회적 체계성과 위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준비 과정은 개인적인 자아실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서명선, 정정희, 안성식, 2021). 그러나 산업군내에서 직업적 선택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은 그만큼 태권도 전문 인력의 이탈을 의미하며, 장기적으

로 태권도 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자초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였을 때 태권도와 관련된 정보의 과잉과 자신이 몸담고 있던 태권도학과 집단에 대한 인식이 진로 선택을 망설이게 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학 재학 중에는 학과 생활과 태권도 동아리 활동 등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모됨으로 주변인에 의한 정보 이외에 진로나 취업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폭넓은 정보가 부족하고 타인의 경험에서 나타난 감정적인 해석 등으로 인해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웠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내적동기를 유발할 수 없는 정보의 만연과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의 제한으로 자신의 적성과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학의 취업지원사업, 진로 특강, 취업설명회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나 단기적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김호원, 이종구 및 김홍유(201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학 진로 프로그램 참여자가 20%도 되지 않으며, 이중 만족을 느낀 학생은 더 적게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전공별 분류체계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학생 개인에게 충분한 상담 시간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개별적이고 차별적인 진로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다(선혜연, 이제경, 김선경, 2012). 특히 태권도나 체육은 학문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전공 영역으로의 활용과 연계에 대한 진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태권도하는 삶에 대해 고민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발적 휴학을 통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낯선 환경에서 마주한 자신은 낯선 모습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몸소 체험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시간 태권도를 수련하고 태권도학과로 진학하면서

태권도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를 높이면서 태권도 전문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사회 진출을 앞두고 휴학 기간 중에 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태권도하는 삶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태권도에서 벗어나다

자발적 휴학 기간 중 태권도 이외의 영역에서 진로 탐색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으며,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소진되어 있던 목표 의식을 다시금 갖게 되며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자발적 휴학을 통해 시간의 유용과 공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태권도학과생들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 사회의 청년들을 만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태도와 행동, 그리고 노력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준이 자기에겐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면서 진로에 대한 성숙된 태도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휴학하면서 연극하는 애를 알게 되었는데 개는 연기하는 것 자체에 행복해 하더라고요. 개랑 얘기하면서 점차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태권도를 처음하던 때요. 태권도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경쟁하러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던 태권도를 하자’고 생각해요. (참여자 G)

토익 스터디에서 만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조금만 노력하면 사무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남은 시간에는 (자기계발, 취업준비, 직업소개) 영상을 엄청 봤던 것 같아요. 일이란 것이 다 비슷할거라 생각해요. 다만, 미래 전망도 있고 고용이 안정적인가가 중요하겠더라고요...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태

권도 사범 일은 저출산도 그렇고, 해야 하는 일도 많고 사립 시설이다 보니까 좋은 직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D)

이들은 자발적 휴학 기간에 우연히 만나게 된 여러 전공자와 근로자들을 통해 한국 사회의 고용 흐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나아가 태권도 산업과 비교함으로써 전공을 살려 태권도와 관련된 직업군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를 통하여 태권도학과생들이 잠시 대학을 벗어나 겪게 된 환경에서 피상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던 태권도 관련업(業)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고 주변 사회 환경과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이해하며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설계하는데 원동력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직업이 평생 직업이 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사회는 직장이나 직종의 변경이 일생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지며, 동시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갖기도 하는 등 개인의 진로 선택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학과생들이 시급하게 결론짓고자 하는 졸업 후 진로 선택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일생에 걸쳐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이건남, 2013). 그러나 대학 기간 중 진로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은 이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겪게 될 진로에 대한 고민과 실패를 줄여줄 수 있다.

세계연맹이나 대태협에서 일하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가 막막해하던 중에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인턴을 뽑더라고요. 일단 지원했죠. 일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대학에서 배웠던 과목들 중에 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참여자 K)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서 운 좋게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너무 재미있었고, 새로웠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게 좋았어요. 태권도쪽에는 한계가 있어서 졸업이 늦어지더라도 경영학을 복수 전공해서 스포츠마케팅 회사로의 진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J)

태권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업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태권도학과생들의 진로나 취업은 비교적 한정적이다. 따라서 태권도학과생들은 태권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체육지도자연수원에서 부여하는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으며,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선수 생활을 하면서 태권도 실기 능력을 키우고 경력을 쌓아간다. 체계적으로 습득한 태권도 이론과 실기 능력은 우수한 태권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지만, 태권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인턴을 모집하는 경우가 미비하여 태권도 관련 사무직으로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취업 준비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태권도 산업 구조가 영세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태권도 관장이나 사범 이외의 직업을 선택할 경우 태권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적인 활동들을 이어가며 자신의 적성에 대해 고민하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태권도 관련 직업의 장단점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만의 기준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태권도 산업에 대한 전망과 자신의 사회적 진로 준비 상태에 대해 검토하며 취업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과감하게 직접 자신이 익숙한 분야를 벗어나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하고 부딪히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성취를 거두며 자신의 삶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 건강과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태권도에 집중하다

태권도학과와 교육과정은 태권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태권도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학 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이 태권도로 귀결된다. 대학이 지식의 상아탑으로써 학문 영역의 세분화와 내용의 심도성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태권도학과와 태권도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체계적

교육과정은 태권도학과생의 사회 진출 영역 및 방향을 분명하게 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를 벗어난 사회에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확인하고,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역량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직업 탐색 과정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다시금 전공 학습에 대한 의지와 생각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하여 진로 성숙으로 이어졌다.

1) 학문과 현장의 경계에 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발적 휴학 기간 동안 태권도 현장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성향과 전공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대학에서 태권도 이론과 실기 강의를 수강하면서 수련생, 선수 및 입시생 때와는 달리 태권도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으나, 학문적 영역이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현장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변수들을 마주하면서 전공 영역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학교에서 배운대로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해봤어요. 그런데 애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지루해하더라고요. 가르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를 버텨내니까 일도 몸에 익고 애들이 변하는 게 보이니까 기분 좋았죠. (참여자 C)

미국은 국내랑 문화가 달라서 도장에서 일하는데 적응 시간이 꽤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애들도 저를 잘 따르고 시스템 자체에 적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영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어요. 해외 사범이 되고 싶어서 지금 영어 회화 위주로 공부하고 시범도 배우고 있어요. (참여자 D)

스포츠용품 업체에서도 일했는데 전체적인 산업의 구조나 규모를 알게 되었죠. 다시 복학하니까 오히려 공부가 더 잘되어요. 제가 경험한 내용을 교수님들께서 더 나은 방법으로 설명해주실 때도 있었고, 당연히 보이고 쉬워 보이는 내용도 디테일하게 생각하게 돼서 재미있더라고요. 나에게 어떤 과목이 필요할지도 생각

하게 되었고요. 왜 대학을 나와야 하는지 비로소 알 것 같은 느낌? (참여자 J)

휴학생들은 대학 진학으로 자신의 전공과 진로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휴학 기간 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방향성을 다시금 탐색하였으며 여기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태권도 관련 업종의 위치와 대우 수준 등을 비교하며 태권도계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생일 때와는 달리 태권도학과생으로서 갖추게 된 지식과 실기 능력을 바탕으로 마주하게 된 태권도 현장은 이론과의 괴리가 상당 부분에서 존재하였지만, 이러한 경험은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 복학 후 학업에 대한 내적동기를 끌어내기도 하였다. 즉, 자신과 태권도 현장의 가치와 운영 방식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전공에 대하여 심리적·학문적 경험을 끌어낸 것으로 판단된다.

2) 익숙함에서 낯설음 느끼다

연구참여자들은 태권도 도장과 대학의 태권도학과에서 다양한 태권도인들을 만났고, 수련생인 동시에 전공생으로서 태권도 현장을 익숙하게 느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경험은 익숙함보다는 낯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태권도 사범인데, 경력도 쌓을 겸 태권도 사범을 하게 되었어요. 수련생일 때도 교범을 하면서 사범님들을 도왔지만, 그때는 안 보이던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15년을 태권도를 해왔는데도 부족함을 느꼈어요. 가장 큰 것은 수련생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C)

저도 선수 생활을 해봤으니까 중학생들이 뭐 생각을 하는지, 운동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눈에 바로 보이더라고요 또 열정만 앞서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대학

에서 배운 대로 공감해주면서 상담도 해주고, 애들별로 자세 같은 것도 교정해주고 보조 훈련법도 알려줄 수 있었어요. 그래도 팀을 전담하려면 공부랑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참여자 F)

이들은 동일한 일정과 익숙한 환경인 학교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생이란 역할적 의무에서 벗어났을 때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태권도학과생들은 3단 이상의 유단자로서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태권도를 수련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태권도 관련 프로그램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빨라 태권도 관련 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적응력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성인의 인지능력과 직업적 태도를 갖추고 태권도를 마주한 경험이 미비하였기 때문에, 전문적 직무 영역에서의 태권도 현장은 또 다른 의미의 ‘낯선’ 공간으로 여겨져 이에 적응하는 과정이 다시금 필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휴학은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여 소속감, 취업까지의 시간 확보, 안정감 및 인턴 지원 기회 확보 등의 이득이 있어(강경연, 박숙경, 이제경, 2015) 학생들이 취업난 속에서 졸업 대신 휴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에서도 실제 직무를 체험함으로써 인턴으로 소비되는 시간의 단축과 조직적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에서도 우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미경, 2017).

3) 다양한 전문성을 마주하다

연구참여자들은 태권도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태권도에 관한 생각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삶의 자극으로 다가왔다고 하였다. 초기에는 자신과 다른 가치관과 방식으로 행동하는 상대를 마주하게 될 때면 자신에 대한 의심과 반성, 상대에 대한 반감 등이 나타나 혼란스럽고 곤욕스러웠으나, 반복적인 경험속에서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기보다는 유연한 사고로 자신과는 다른 배경을 가진 상대방의 생각

을 수용하면서 합리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겨루기 애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일하던 도장에 겨루기 선수를 했던 사범님이 계셔서 겨루기 가르치는 법을 좀 배우게 되었어요. 저희랑 훈련방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더라고요. 전혀 다른 태권도였어요. (참여자 C)

처음 일했던 도장 관장님이 ‘돈만 좇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태권도 보다도 줄넘기나 행사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저런 사람이 태권도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끝날 때쯤에는 그게 학부모님들을 마음을 잘 아는 거였어요. (참여자 E)

(가제) 태권도 관련 프로젝트에도 참가했었는데요. 그때 만난 사람들이 태권도에 대한 열정이 존경스러운 정도였어요. 대화도 잘 통했는데, 우리 나이 때에 고민하는 것들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사랑, 직업, 미래 등등 그런데 그동안 제가 생각하고 들어왔던 것보다는 훨씬 다양한 방식과 직업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참여자 J)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대인관계는 함께 강의를 듣거나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이벤트(총회, MT 및 축제 등),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소속 단과대학이나 학과로 제한되며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 특히, 태권도계가 각 태권도 도장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거나 대학 동문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어 있으며(최천, 최영렬, 2012), 기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나 관련 교육이 미비하기 때문에 태권도인들 간의 선문화를 구성할 수 있는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경험하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대인관계의 형성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인적 자원의 수와 다양성이 제한적이며, 사고방식의 차이를 크게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 또한 있다. 그러나 휴학을 통해 갖게 된 시간적, 정신적

여유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대인관계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긍정적이지 못한 롤모델을 마주함으로써 대학생들이 태권도 관련 진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자발적 휴학을 통해 태권도학과생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또래 관계를 벗어나 사회적 인간관계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면교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에 따라 노사관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에 대한 책임감으로써 선임 지도자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면 현장에서 축적된 노하우나 관련 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태권도인과의 관계 선정은 대인관계 확장에 있어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태권도학과생들의 자발적 휴학 동기와 경험한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율적 생활’과 ‘진로 탐색’을 하고자 자발적 휴학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생활은 청소년기에 비해 높은 자율성을 갖게 되었지만, 선수부 활동, 강의 수강, 과제, 시험 및 동아리 활동 등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전공에 집중하면서 현장이나 직업과 관련된 정보나 그 외의 경험에서 한계를 느껴 휴학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발적 휴학을 통해 경험한 내용은 크게 ‘태권도에서 벗어난 삶’을 경험한 것과 ‘태권도 현장에 집중하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경험은 결국 태권도를 지속하는 것, 사회로의 진출에서 태권도를 직업으로 삼는 삶에 대해 자신의 역량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자발적 휴학기간 동안 연구참여자들이 학교

라는 안정감 있는 공간, 대학생이라는 위치, 태권도 전공생의 생활에서 벗어나면서 사회적 주체로서의 낮은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경험을 의미한다. 온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역할 수행, 자신에 대한 성찰, 책임감 및 성취감의 획득 과정들은 연구참여자가 주체적 성인으로 성숙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둘째, ‘태권도 전공자로서의 진로 탐색 경험’은 오랜 태권도 수련 경험과 학문적 소양을 일부 갖춘 태권도학과생들이 사회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태권도의 의미를 인식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태권도 현장 환경이 자신의 진로 선택 기준과 일치하는 정도를 탐색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태권도 실기와 이론이 반영되는 태권도 현장이나 전공과 관련 없는 영역에서 마주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보유한 직업적 역량과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의 직업관에 대해 인지하면서 사회적·학문적 견문을 넓히고 태권도 하는 삶에 대한 가치를 재탐색하게 하는 등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할 기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태권도학과생의 휴학이 졸업의 지연이나 대학 재원의 이탈 등 부정적 사회 현상만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를 거쳐 초기 성인기에 위치한 대학생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머물던 상황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험은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인식하게 하며, 주체적 삶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대학생 세대의 인식과 사회의 인재 기준에 주목하여 휴학 기간의 제한 및 승인 차원의 운영에서 벗어나 대학생에게 휴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 교육과 연계된 현장 제공, 사회적 준거인과 대학 이외의 대인관계 확장 경험 제공 등 교육과정 안에서의 휴학 제도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면 재원의 이탈 방지와 전공 영역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10명의 태권도학과생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휴학 사유나 태권도 관련 경력

등 태권도학과생이 처한 상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첫째, 대학별 태권도학과의 운영
체제, 선수, 동아리 활동과 같은 개인의 태권도 경력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
수를 늘려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체육 계열 전공에서 나타나는 휴학
현상의 내용과 특성, 복학 후 대학 적응, 진로 탐색 등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연, 박숙경, 이제경(2015). 대학생 졸업유예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34(2), 31-51.
- 강은석(2019). 국내 태권도학과 교육의 질 제고에 따른 교육과정 문제와 변화. **무예연구**, 13(3), 105-125.
- 곽정현, 조성균(2016). 태권도학의 발전을 위한 2세대 태권도학과의 역할. **한국체육과학회지**, 25(6), 13-24.
- 국기원 태권도연구소(2017). 2017 전국 태권도 관련 학과 현황 조사 결과.
- 김두한, 백우열(2020). 지속 가능한 태권도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개선 과제 탐색. **한국융합과학회지**, 9(2), 258-269.
- 김미경(2017). **대졸 청년층의 인턴제 경험이 좋은 일자리 진입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호원, 이종구, 김홍유(2011). 국내 대학 취업진로기구 운영실태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구 생산성연구)**, 25(1), 317-345.
- 나운호, 장익영(2020). 태권도전공 대학생의 해외 태권도 지도 경험, 세계시민성 및 문화 개방성의 관계. **스포츠사이언스**, 38(2), 159-169.
- 박상진, 이재봉(2019). 대학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 탐색과정에 대한 경험적 특징. **한국스포츠학회지**, 17(4), 1243-1253.
- 박상진, 이재봉(2019). 대학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 탐색과정에 대한 경험적 특징. **한국스**

포츠학회지, 17(4), 1243-1253.

박성언, 김하영(2016). 대학생들의 해외 태권도 봉사활동 참여의도 및 행동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5(1), 187-196.

박은선, 김광현(2016). 학업중단요인 및 대학생활적응요인이 대학 신입생의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0), 361-384.

서명선, 정성희, 안성식(2021). 대학생들의 진로선택동기와 대학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1(2), 109-130.

서희정, 이운영, 박지연(2020). 해외 태권도 파견경험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의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도학회지**, 22(1), 125-140.

석류, 송남정(2017). 태권도 해외봉사단원의 세계시민의식이 문화다양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무예연구**, 11(1), 43-57.

선헤연, 이재경, 김선경(2012).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고민 내용 및 원인과 결과. **아시아교육연구**, 13(2), 1-24.

송성봉, 이재봉(2018). 품새 선수의 대학 및 직업 진로탐색 행동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6(4), 1237-1249.

송필준, 김중태(2012). 대학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관분석과 변수선택에 의한 선형모형추정.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3), 457-465.

신호철, 김중수, 차영남(2020). 태권도 시범단 참여 만족이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코칭능력개발지**, 22(2), 44-51.

안근아, 이재봉, 이석귀(2014). 태권도학과 전공생의 교육환경 및 전공만족에 따른 개선 방안. **스포츠 사이언스**, 31(2), 77-84.

우선영(2016). 4년제 대학생의 졸업 소요기간에 대한 영향 요인 검증. **교육행정학연구**, 34(4), 73-97.

유동현(2016). 태권도 시범단 활동이 군복무후 복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예연구**, 10(1), 77-94.

유동현(2017).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전·후 태권도전공 학생들이 인식하는 태권도 시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국기원 태권도연구**, 8(1), 107-121.

윤혜영, 박재우(2020). 태권도 전공 대학생의 미국 불법인턴사범 경험과정의 의미와 가치 탐색.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3(2), 74-89.

- 이건남(2013). 대학교 4학년 학생이 인식하는 구직역량 및 교육요구도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14, 299-325.
- 이용국, 최유리(2017).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근거한 태권도학과 교육과정 개발. **국기원 태권도연구**, 8(4), 75-96.
- 이종하, 김동준, 김준(2016). 휴학의 노동시장 성과: 대학졸업생 중 39세 이하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13(1), 1-20.
- 주희정, 차성현(2011). 대학생의 휴학 결정 요인 분석. **教育行政學研究**, 29(1), 277-293.
- 최공집, 조혜영(2020). 태권도학과 재학생의 학습역량과 전공만족도 및 전공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전공 학습특강 단/다회기 참여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1), 263-279.
- 최천, 최영렬(2012). 태권도지도자의 동문브랜드에 대한 애착도가 조직몰입 및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 21(4), 53-65.
- 통계청(2020).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 홍영숙(2018). 군 휴학 경험과 관련한 한 남자 대학생의 살아내는 이야기 탐구: 경험의 시간성을 축으로. **교육문화연구**, 24(2), 139-158.
- Astin, A. W. (1984). Student involvement: A developmental theory for higher educ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3(4), 297-308.
- Kuh, G. (1991). *Involving Colleges: Successful Approaches to Fostering Student Learning and Development outside the Classroom*. Jossey-Bass Publishers, 350 Sansome Street, San Francisco, CA 94104.
-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s, CA: Sage.
- Michal Kurlaender, Jacob Jackson, Jessica S. Howell and Eric Grodsky. (2014). College course scarcity and time to degree.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41(C), 24-39.
- Patton, M. Q. (1980).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Vol. 381)*.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Strange, C. C., & Banning, J. H. (2001). *Educating by Design: Creating Campus Learning Environments That Work*. The Jossey-Bass Higher and Adult Education Series. Jossey-Bass, 350 Sansome St., San Francisco, CA 94104-1342.

ABSTRACT

A study on th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Taekwondo through leave of absence

Kim, Na-Hye · Jung, Tae-Gyeom(Kyunghee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otivation for Taekwondo students to take a leave of absence and the significance of their experience in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take a leave of absenc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between March and April 2021 with 10 students enrolled in the Taekwondo Department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s a result, The motives for taking a leave of absence are ‘independent life’ and ‘exploring career paths’ , and it is known that they want to break away from the time and space constraints of universities.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tried to find their own careers by experiencing ‘life outside Taekwondo’ or ‘life concentrated on Taekwondo’ . These results suggest that universities should be able to effectively utilize the leave of absence system by paying attention to the changes in society and the gener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field of study by reorganizing the leave of absence system and providing a space for university students to demonstrate their abilities to utilize the results of education.

Key words: university leave of absence, Taekwondo Department, experience, career development

논문투고일 : 2022.01.04.

심 사 일 : 2022.01.20.

심사완료일 : 2022.02.15.